

트럼프 관세 폭탄에 기아차·금호타이어·삼성전자 전전긍긍

미, 광주 수출 비중 36.7% 최대...물량 조절 등 대책 마련 분주
차 부품·철강·알루미늄 등 절반 가까이 “관세 직접 영향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 주요 품목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는 3일부터 관세 부가가 시작됐으며, 광주 대표 수출기업인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등이 생산하는 대미 수출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지역 산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3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의 '2025년 2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미국 수출 비중은 36.7%로 '최대 수출국'으로 분류된다. 자동차가 48.7%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21.9%), 고무 제품(5.3%), 냉장고(3.8%), 자동차 부품(3.6%)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타이어·가전 등 지역의 중추적인 사업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지역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해외 매출 비중 80% 중 미국 수출은 30% 수준으로, 크지는 않지만 미국은 주요 고객층 중 하나로 분류된다.

금호타이어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 물량을 조정하고 미국 조지아 공장 생산 공정에 투자해 부분 증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미국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냉장고 등 가전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역시 안정적인 물량 운영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수출 비율 65% 중

미국 수출만 50%에 달하는 등 미국 수출이 수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미 자동차 관세 부가가 시작된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미국 무역 정책 방향성과 국가간 통상 문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중소기업부(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상품 수출기업 294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 중소기업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2.8%가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2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3일 자동차 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 관세 조치까지 시행되면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점차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대체 시장 발굴,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된 사업이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다음 주까지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윤석열을 파면하라”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즉각퇴·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헌재 전원 일치 파면 선고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진보 3명, 중도·보수 5명...헌재 재판관 8명에 쏠리는 눈

윤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성향 관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이 정한 헌재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는 점에 있다.

성향으로 분류하면 진보 재판관이 3명, 중도·보수 재판관이 5명으로 평가된다.

진보성향은 헌재 소장을 대항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꼽히고 있다. 문 대항과 이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

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월 지명했다.

중도라는 평을 받고 있는 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은 윤 대통령 정부 시기인 2023년 김영주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된다. 정 재판관은 2023년 12월 윤 대통령이, 김 재판관은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지난 1월 지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성향이 탄핵심판 선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사건 등에서 기각·인용·각하에 각 5대 1대 2의 의견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중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인용의견을 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각각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지도 않다’는 별개의견을 피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오늘 탄핵심판 선고 출석 안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중계로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구속된 이후 헌

재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준비기일에 대부분 출석해왔다.

헌재에서 진행된 총 11차례에 변론기일에 8차례 출석했고, 지난 2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도 직접 출석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소포기로 석방된 뒤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편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등 9개 교육청,尹탄핵심판 시청 권고...교육부 “법령 위반”

전교조 “교육부 생중계 시청 유의사항은 안내 아닌 협박” 비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이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각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고 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보급했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위한 교사 교육자료’를 다시 보급,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8개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탄핵 심판 생중계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전교조는 곧장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생중계 시청 유의사항은 안내가 아닌 협박”이라며 “공문을 통해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야말로 교육기본법 제6조가 명시된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03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3월 26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4일

주식회사 신이해운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개천로 571

청산인 정현 석

73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안 신 571-7688	• 오 차 266-7601	• 신 안 222-8171
	• 동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 우 산 433-1503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동 구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북 부 673-6836
	• 북 부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신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서광주 369-1625	• 온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화 정 369-1625	• 풍 암 603-0311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